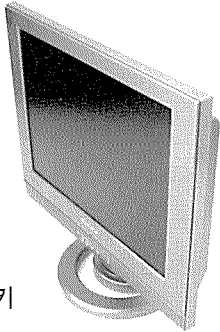


중국 스카이워스·콩카등 4개 TV 업체, 평판패널 콘소시엄 결성

2단 창흥·스카이워스·콩카·TCL 등, 4개 중국 TV 제조업체가 자국 내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해 컨소시엄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사는 선전 선차오 투자와 협력, '선전 주룽 옵티컬 일렉트로닉'이라는 TFT LCD 컨소시엄을 설립, 중국에 6세대 라인을 건립하기로 했다. 아이서플라이는 세계 TV 시장의 30% 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이들 4개사가 한국이나 대만이 장악하고 있는 TFT LCD 분야에서 고유의 생산기반을 갖추기 위해 협력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이서플라이는 이 벤처기업의 설립 자체에 대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중국 어느 도시에 생산라인을 건립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이 벤처기업의 파트너 중 하나인 선전 선차오는 이미 200mm 반도체 공장 건립을 발표했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 5세대 TFT LCD 공장 2개를 운영중이다.

일본 NEC와 중국 SVA가 2003년 합작 설립한 '상하이 SVA NEC LCD'는 월 5만2,000장의 패널을 생산할 수 있다. 이 회사는 2년 안에 15억달러를 들여 6세대 TFT LCD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또 하나는 '베이징 BOE옵토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로, 현재 월 6만장 규모인 5세대 라인 생산을 8,700만달러가량을 들여 월 8만5,000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7세대 TFT LCD 공장 건립을 위해 펀드를 모집중이다.

오라클, 자체 리눅스 버전 발표 검토

래리 엘리스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는 오라클이 자체 리눅스 버전 발표를 검토하고 있으며 리눅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두 기업 중 하나인 노벨의 인수를 고려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월 17일 보도했다. FT는 이런 시도가 SW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간의 오랜 경쟁구도에 새로운 전선을 열 것으로 전망했다.



엘리스 CEO는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MS처럼 운영체제(OS)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모든 분야 SW들을 판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SW의 모든 부분을 묶는 것이 정보 시스템을 제어하기 쉽게 만든다"며 "이러한 방식은 MS의 접근방법이자 오랫동안 IBM의 접근방법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엘리스는 "우리의 큰 고객 대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곳에만 전화하면 해결되기를 원할 것"이라며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을 판매한다면 운영체제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완전히 책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FT는 이처럼 한 업체가 SW 전

분야를 구축하는 것은 고객들이 서로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컴포넌트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고 SW 산업의 경쟁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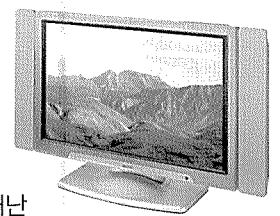
리눅스 운영체제와 여타 오픈 소스 SW의 성장 및 '서비스로서의 SW (sw-as-a-service)'의 등장이 오라클 같은 SW 거인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실리콘 밸리도 '웹 2.0'이라는 새로운 SW 개발 방법으로 들끓고 있다.

엘리스는 최근 들어 오픈 소스 SW의 잠재력과 위협에 대해 "우리는 오픈 소스와 싸울 필요가 없으며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BM과 마찬가지로 MS 윈도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리눅스에 기대를 걸어난 엘리스는 오픈 소스 SW의 증대되는 영향력을 보고 노벨의 인수를 고려해 왔다고 밝혔다.

일본 HDD업체들 생산설비 확대 투자 바람

히타치GST가 올해 중국 진천공장을 중심으로 작년 대비 약 50% 늘어난



1,000억엔을 투자하고 후지쯔·도시바도 국내의 공장의 생산설비 증강을 위해 각각 수백억엔씩 투자할 계획이다.

히타치GST는 공격적인 투자 방침에 따라 진천공장 3.5인치 조립라인의 월 생산 능력을 올 초 가동 직후 수만대에서 연말까지 100만대로 늘린다. 이와 동시에 디스크 제조 및 헤드 조립을 담당하는 중국

의 다른 2개 공장 및 태국 공장의 설비도 증강키로 했다.

히타치GST의 지난해 매출은 총 4,960억 엔으로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기억용량을 확대한 신기술 제품의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장별 최신 제조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점유율 확대에도 나서 올 하반기 HDD 사업에서 흑자 전환을 노린다.

후지쯔는 올해 설비투자액을 성장시장인 2.5인치형을 중심으로 작년 대비 수십억 엔 많은 약 150억엔으로 늘려 잡았다. 월 220만대를 생산하는 태국공장을 올 연말까지 월 250만대로, 내년까지는 월 300만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자회사인 야마가타후지쯔의 디스크 제조라인도 추가로 늘려 올 출하대수를 작년 대비 30% 늘어난 3,400만대로 확대한다.

도시바는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총 3년간 650억엔을 설비투자에 투입한다. 세계 1위인 1.8인치를 비롯한 소형 HDD에 경영자원을 집중시켜 생산능력을 작년 대비 1.7배로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미국 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HDD 세계시장은 지난해 약 3억7,000만대에서 오는 2010년에는 약 7억3,000만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시장 전체의 16% 정도였던 가전 분야 제품 점유율도 2010년에는 29%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AMD, 독일에 3년간 25억달러를 투자

AMD가 25억달러를 투자해 모든 생산시설의 반도체 웨이퍼를 300mm로 전환

한다.

지난 5월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MD는 독일 드레스덴의 200mm 웨이퍼 제조시설(팹 30)을 300mm로 업그레이드하고 명칭도 팹 38로 바꿀 예정이다. 300mm 웨이퍼는 200mm에 비해 반도체 칩 생산량을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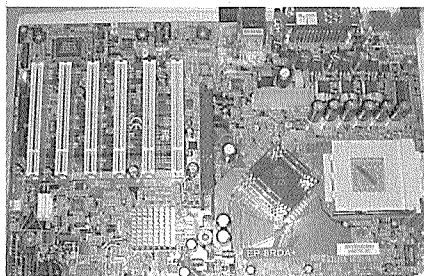
AMD의 헥터 루이즈 CEO는 "전세계적으로 AMD CPU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로 드레스덴의 생산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MD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환작업에 돌입, 작업이 완료되는 연말이면 월 2만장의 300mm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적용되는 회로 선포는 최첨단인 65nm이며, 2008년 중반에는 45nm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가동에 들어간 300mm 팹 36의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25% 늘어난 월 2만5,000장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웨이퍼 범핑과 테스트를 위한 클린룸 건물도 새로 짓는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2008년이면 AMD의 드레스덴 공장에서는 월 4만 5,000장의 300mm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AMD는 또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싱가포르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업체 차터



드 세미컨덕터를 통해 변화하는 제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차터드는 오는 7월 AMD에 처음으로 300mm 웨이퍼 1,000장 분량의 CPU를 납품한다.

최근 세계 1위의 PC 제조업체인 델은 서버제품에 AMD의 CPU를 채택하기로 결정, AMD의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델은 모든 컴퓨터에 인텔의 CPU만을 사용해 왔다.

차이나모바일, 53억달러에 밀리콤 인수합병

차이나모바일이 중국기업 사상 최대규모인 53억달러짜리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켜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됐다.

밀리콤은 중남미·아프리카·아시아 등 16개국에서 990만 가입자를 보유한 이동사로 지난 1월 모기업인 킨네빅그룹이 매각계획을 발표하면서 치열한 인수경쟁이 진행됐다.

이번 인수규모는 밀리콤의 현 시가총액 49억달러보다 높은 53억달러로 알려져 중국기업의 해외 M&A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차이나모바일은 밀리콤을 인수함에 따라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이동통신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차이나모바일은 이번 인수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두바이의 인베스트콤이 막판에 피인수당하면서 어부지리로 밀리콤을 얻는 행운을 갖게 됐다.

중국 현지 언론은 다음주에 차이나모바일의 밀리콤 공식 인수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했다.